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7 월의 선교편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벌써 7 월의 끝이되었네요. 올해 후반기의 사역들을 계획하다보니 벌써 2024 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와 기적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저희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소년원 소식

3 월부터 시작한 주일예배는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 어수선 했던 아이들이 점점 아이들 시간속에 예배가 정착이 되어가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사탄의 역사가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 우리팀들에게 두려움과 낙심을 잠시 주었으나 기도 가운데 “너희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다시 회개하며 연약한 아이들의 잘못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하기에 사랑으로 관심을 갖어주니 변화가 있네요. 우리의 뜻을 따라주지 않고 반항을 하며 예배에 참석을 거부하던 아이도 계속해서 따스하게 대해주고 기다렸더니 결국 찾아와 다시 주님을 알고싶다고 하더군요. 감사하지요....

이제는 예배시간인 오후 3 시에 가면 벌써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촌 Vila Vila 소식



페루 북쪽에서 문서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주일학교 교재를 구입하여 아이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예쁜 가방과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빨강 쪼끼와 가방을 들고 여기저기에서 토끼들 처럼 하나 둘씩 뛰어옵니다. 6 월에는 많은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고생들을 하였습니다. 신실한 아이가 오질얌아 집에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나오셔서 지금 심하게 아파서 나갈수가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도착해 틀어논 찬양 소리를 듣자 아이가 미션삼마가 왔다고 울고있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 Sama 소식

삼마에 큰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다 떠나고 다시 초등학생들을 모집하여 시작했습니다. 농촌이라 사는 곳에서 학교가 다 멀어 버스를 타고 모임 장소인 학교까지 와야하기에 많은 아이들이 오질 못하네요. 작은 숫자라도 이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삼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점과 굿을 하는 토속신앙이 유명한 지역이라 교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새로운 CEDIF 사역

4 월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CEDIF(가정복지센터)에 매주 금요일 찾아가 그곳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1 부 순서는 예배를 드리고, 2 부 순서에는 그림에 색칠하기, 손톱정리, 머리 컷, 크레프트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역은 우리가 처음이라 부담이 되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말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공부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했더니

할아버지 한분이 “어이~~ 장모도 없는 아내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 하시더군요. 얼마나 웃기던지.... 출석을 부를때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없어요” 라고 장난을 치시길래 그분에게 피노키오라고 별명도 지어드렸습니다. 정말 애기들 같으세요.

이렇게 저희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섬기면서 행복하게 올해 7 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계획대로 많은 변화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많은 일들은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실것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 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페루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페루 딱나의 선교사역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Misión Shammah 리더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2. 소년원에서 드리는 주일예배와 말씀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3. Vila Vila 어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장소의 허가가 잘 진행되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4. Vila Vila 어촌과 Sama 농촌 아이들에게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5. CEDIF(가정복지센터)에서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6. 막내 베키의 학업에 필요한 대학교 학비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7. 사역에 필요한 7 인승 SUV 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